



# 하계 U대회 본진 베오그라드行

## 광주·전남소속 선수13명 등 12개 종목서 최고 성적 기대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의 축제인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 본진이 28일 장도에 올랐다.

김양중 선수단장 등 임원 17명을 포함한 본진 선수단 74명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대회가 열리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향해 떠났다.

내달 1일부터 열흘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120개국에서 1만여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가, 각국의 명예를 위해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눈다.

한국은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첫 하계 U대회에 1개 종목, 1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래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 지금까지 20차례 참가했으며,



2009 세르비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이 28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에 앞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대구에서 열린 제23회 대회에서는 종합 3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육상, 축구, 농구 등 12개 종목 248명으로 구성된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광주 소속 선수는 육상 김덕현(광주시청) 등 5개 종목에 7명이고, 전남 소속 선수는 유도 김수완(용인대) 등 3개 종목 5명과 임원(태권도 최공집) 1명이다.

/연합뉴스



철인 3종경기...인간 한계에 도전! 28일 속초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에서 수영 종목에서 인간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속초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에서 수영 종목에서 인간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체고 황준호 2관왕

### 대통령배수영 남고부 자유형

광주체고 황준호가 제28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황준호는 28일 전주완산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3분 58초46와 1분50초60으로 각각 '금빛영역'을 펼쳐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여자 일반부 평영 200m에선 김고은(HI코리아·2분33초56)이 박결(수원시청·2분37초91)·김지연(안양시청·2분38초97)보다 훨씬 앞선 기록으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서승원기자 swseo@

## 광주협회 윤웅진·이태성 금

### 전국산타선수권 열 일반부

광주협회 윤웅진과 이태성이 격류기 대회 일종인 제7회 전국산타선수권대회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윤웅진은 28일 경북 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56kg급 결승에서 이호석(강원)을 상대로 타격과 유술(잡아사넛)을 자유자재로 구사,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쳐며 가볍게 승리를 거뒀다.

남자일반부 -60kg급에선 이태성도 김진혁(서울)을 월등한 기량차로 누르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편 -75kg급 결승에선 이지복(광주협회)이 김영진(서울)에게 아깝게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

## 광주연맹 역도 강지나 銀 3

광주연맹 강지나가 제81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강지나는 28일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58kg급 경기 인상에서 78kg, 용상에서 103kg를 들어올려 각각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합계에서 181kg으로 장미령(고양시청·187kg)에 밀려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

## 남부대, 회장기 사격 동메달

남부대가 제25회 회장기전국사격대회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부대는 28일 나주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대학부 공기소총 10m 단체전에서 1천 764점을 쏴, 경남대(1천777점)·한국체대(1천772점)에 이어 아쉽게 3위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



29일(월) ▲대통령배 전국 남부종교 배구대회 여고부 결승(12:50·SBS스포츠) 남고부 결승(14:30·SBS스포츠)

# 광주선발 이춘현·이중협 금

### 문광부장관기 근대5종 남 일반부

광주선발 이춘현(주택공사)과 이중협이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선발은 지난 26일 대구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경기에서 1만1천912점을 기록, 대구(1만1천908점)·부산(1만1천732점)을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춘현은 근대5종 개인전에서 6천36점으로 남동훈(대구·6천28점)·이승현(부산

5천932점)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근대 4종경기에선 광주선발 황우진(한국체대)이 4천800점으로 선전했으나 안지훈(경기·4천832점)·김대용(충남·4천804점)에 이어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근대4종 단체전에선 광주선발(황우진·김상완·유창용·조용범)이 1만8천144점으로 4위에 머물렀다. /서승원기자 swseo@



29일(월) ▲대통령배 전국 남부종교 배구대회 여고부 결승(12:50·SBS스포츠) 남고부 결승(14:30·SBS스포츠)

# 최성국 결승골...광주 선두 질주

### 13R 성남 1-0 꺾어

광주 상무가 성남 일화를 꺾고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광주 상무는 27일 성남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성남 일화와의



2009 K-리그 13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9분 티진 '일병' 최성국의 시즌 7호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상무는 21일 울산 현대와의 홈경기에서 2-1로 승리 한 이후 2연승을 달리며 정규리그 9승2무2패(승점 29점)로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다.

전반 11분 성남 용병 라몬치치의 회심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가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광주는 전반 41분에도 조병국의 헤딩슛을 가카스로 막아내는 등 성남의 공세에 시달렸다.

후반 6분 성남 한동원과 골키퍼 김응대와

1대1로 맞서기도 하는 등 후반에도 성남은 매섭게 광주를 압박했다.

하지만 광주의 공격의 핵 최성국-김명중 콤비의 멋진 플레이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었다.

후반 9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 있던 '일병' 최성국이 '병장' 김명중의 패스를 받아 왼발슛을 날리며 진정한 성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상무는 천군같은 결승골을 지켜내면서 승점 3점을 추가했다.

최성국은 이날 끝로 최근 4경기 연속 득점 포인트(3골2도움)를 기록하면서 팀의 1위 자리를 지켜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월드컵 7회연속 진출 축하해요"

### 히딩크 감독 11개월만에 방한

"한국의 월드컵 7회 연속 본선 진출은 위대한 업적입니다."

가스 히딩크(63) 러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본선에 진출한 한국 축구대표팀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히딩크 감독은 28일 연인 엘리자베스와

인전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인터뷰에서 "한국의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은 위대한 업적"이라면서 "한국 축구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축구의 4강 진출을 지휘했던 그는 이어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애쓴 대한축구협회와 코칭스태프, 축구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면서 "거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법률경매(주) 0621-225-1688 H.010-3565-2888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회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Table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location, price, and agen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큰놈' (Big Guy) supplement, featuring a woman's face and promotional text about its benefits.